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당: 박한희 010-4948-6637 fix.nhrc@gmail.com)

제 목 [취재요청서]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날 짜 2025-04-29 (총 3쪽)

취재요청서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일시·장소 : 4월 30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1. 취지

-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202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혐오세력 행사를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단체가 인권위를 초청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한 쪽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중립’적 스탠스를 내보인

것입니다. 이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마땅히 인권과 사회적 소수자의 편에 서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고, 나아가 기계적 중립만을 앞세우며 실제로는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는 내란세력 비호 등으로 현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답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그간 벌인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 커녕 더욱더 노골적으로 차별에 앞장서고 혐오세력과 일체화 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이번 입장 발표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듣기 위한 공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어떻게 혐오세력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2017년부터 참여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에 결합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3개 단위는 공개질의서 및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면서 4월 30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일시: **2025. 4. 30.(수) 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나라키움저동빌딩)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회 : 권순부(무지개행동 사무국장)

- 발언1 : 명숙(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언2 : 박한희(무지개행동 공동대표)

- 발언3 :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언4 : 양선우(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기자회견 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 및 면담요청서 제출

2025. 4. 29.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